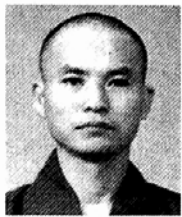


사·부·대·중

아쉬운 이웃



해관스님 계간(불교문예)발행인

문학포교원 앞집이 단독 기와집이었는데 다세대 불이 일더니 여섯 세대가 모여산다. 집 주인이 기독교인이라 모두가 교회에서 아는 사람들로 세를 주었다. 해질녘이면 잠자리 때처럼 모여 앉아 제비처럼 재잘거리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 때론 나도 끼여들기도 한다. 될 수 있으면 끝이 없는 종교논쟁은 피하곤 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 조금 튀는 기독교인이 있다. 아침이면 핸드마이크를 들고 지하철로 나가 하루종일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 법회 날이면 집 앞에 나와 할렙루아 외치기도 하고 법회를 끝나 밖에 나가면 나에게 교회 오면 신학대학 보내주고 장까지 보내준다고 한다. 오죽 답답했는지 주인 아주머니가 스님에게까지 선교하려고 하느냐고 나무라기도 하지만 그 소리가 멎지 않는다. 아저씨는 개인택시 뒤에다 십자가를 붙이고 다니는 장로이며 기사이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차문제에 싸움이 벌어졌다. 내가 잠깐 시

장에 갔다 오느라 법당 앞에 화분을 놓고 갔는데 화분을 치우고 자기 차를 주차시켜 놓았다. 나는 크랙손을 한 두 번 울리고 비켜주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십 여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크랙손을 계속 울렸다. 크랙손 소리가 시끄러웠는지 아주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집 아저씨가 비켜주려고 했는데 미워서 비켜주지 못하겠다고 한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그 집으로 쳐들어갔다. 다른 곳도 많은데 하필이면 법당 앞에 주차하느냐고 한바탕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서서 내 며살을 잡는 것이었다. 포교원으로 돌아와 부처님께 참회하며 마음속으로 "부처님 포교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그 후 한동안 말을 잃고 지냈다. 화해도 하지 못했는데 칠월 어느 날 이사를 갔다. 그때 내가 조금만 내내를 했으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도 칠월이 오면 그 분들이 생각난다.

9년째 경전 운동 '부산대 불교독경회'

"원전 읽으며 교학-신행-수행 기틀 다진다"

9년 동안 이어온 부산대학교 불교독경회(회장 김태원·신라대 철학과)는 불제자라면 마땅히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법을 구해 피안을 건네는 뜻으로 삼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좋은 본보기다.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93년 3월 이준우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매주 한 번씩 모여 3시간 동안 한문 경론서 및 선어록을 읽어오고 있다.

매주 3시간 이상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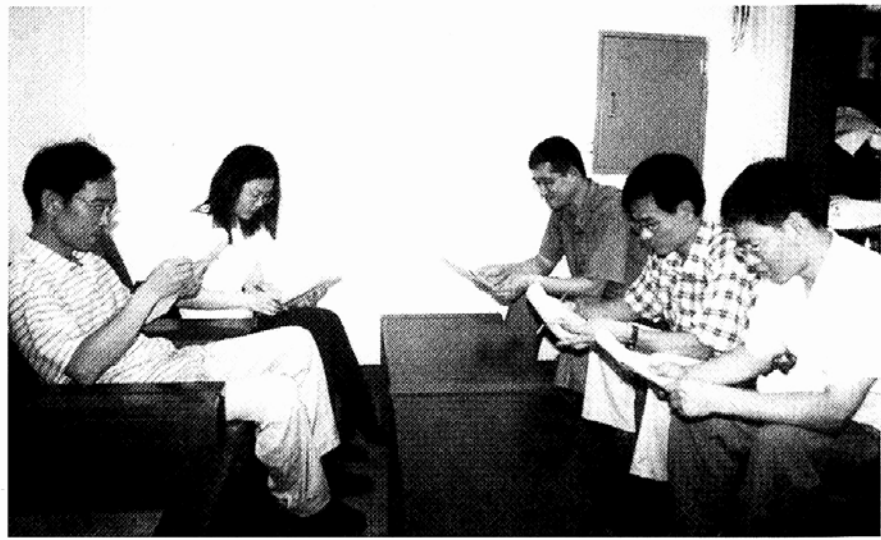
'원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불교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는 생각으로 시작된 순수한 공부모임이다. 회원은 이준우·김태원 교수를 비롯해 김만경 부경대 강사, 김준호 부산대 철학과 강사, 박원훈 부산대 사학과 강사, 윤옥선 동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등 8명으로 초기경전부터 어록까지 대표적 책들은 섭렵했을 정도. <중론> <인명입정리론> <신심명> <전심법요> <입제록> <백장어록> <마조어록> <안능록> 등을 완독했고, <아함경> <구사론>은 부분독, <반야심경> <제이역본 대조록> 그리고 <유식삼십송> 등은 완독해 번역까지 했다.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전국의 여러 운동회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모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로 인해 1996년에 성철선사상연구원으로 부터 승조의 <보문> 강목으로 운동회 지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998년에는 종필의 <승승도>와 <도사>로, 1999년에는 '조선 후기 선선쟁자료집' 가운데 첫 번째 자료인 백파 공선의 <선문수경>으로 세 번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올해부터 운동회 성과를 출판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미 백파공선의 <선문수경>을 번역해 막바지 교정 작업 중이며, <선문사변만어>도 운동회 번역을 완료하고 출간 준비에 한창이다. 이는 부산대 불교독경회가 처음으로 출간하는 책으로 벌써부터 학계의 관심이 높다. 또한 현재 운동중인 <입제록> 중 필 주해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문고판과 단행본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부산대 불교독경회의 활동에서 알 수 있듯 운동회 활동은 특성과는 구별된다. 운동회 통한 번외는 경전

을 단순히 읽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다. 글자 풀이를 넘어 뜻을 새겨 내는 전문적인 작업이다. 경전에 담긴 궁극적인 뜻을 풀이해 내는 것으로 기존 번역서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다듬기도 하여 제대로 된 번역과 주해로 불경을 현재에 되살려내려는 노력인 것. 많은 일반인들이 뜻도 모른 채 암송만 하는 현재 경전공부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운동회 활동의 의미이자 기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인으로서의 업무도 못 낼 원전을 읽고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하는 작업이고 보니 웬만한 결심과 끈기가 아니면 지속할 수 없는 일. '불법의 정수를 알아보고야 말겠다'는 발심 하나로 버텼다고 표현할 만큼 철저한 노력과 자기 수행이 뒤따라야



사진은 9년동안 매주 한 번씩 모여 경전을 강독하고 있는 '부산대 불교독경회' 회원들.

철학·사학 전공자들 주요 회원

'입제록' '선문수경' 등 단행본 준비

기존 번역서 오류 수정 "이해 쉽게"

하는 일이다. 자칫 학문적으로 흐르기 쉬운 경전공부의 한계를 개인적 수행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매주 5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 한 사람의 발표자가 경전을 풀이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찰순례 등 문화체험

현재 운동회는 방학을 이용,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의 온종일 일을 경전 운동회 번역으로 보내고 있다. 특히 운동회에 다시 읽고 있는 <금강경>은 영역본, 산스크리트어본, 한역본 등 7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읽고 있기도 하다.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한때 해체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운동회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몇몇 회원의 원력으로 단 두 명이 모임을 이어가기도 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동안 수녀가 운동회 회원으로 참가해 불교학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고, 현재는 가톨릭 신자가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불경의 문자 해석에 얽매이

기보다는 보편적인 진리 탐구에 주력하고 있다. 공부모임이던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공부만 챙기고 있을 수 없게 됐다. 이들이 원전을 접하고 공부하는 몇 안 되는 전문가 모임인데다 일반인들의 경전공부를 위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운동회가 경전의 번역서를 내는 일과 일반인의 불경 교육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이런 점에서 이미 상당부분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원전 번역 출간으로 일반인에게 불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인터넷 불교동우회에서 그동안의 원전 풀이 강의를 제공하거나 토론의 장을 마련, 일반인들의 불경 공부와 불교수행 전반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현재의 수행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기초교리 수준의 교육만을 겨우 받거나 체계적인 교육의 기

운동회란?

운동(輪廻)은 여러 사람이 차례로 돌아가며 읽는다는 뜻으로 승가의 오랜 전통이다. 승가대학(학원의 원전강독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등 운동회의 성과물들이 단행본으로 출간돼 독자들의 호응을 받고, 소규모의 운동회를 지원하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 운동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불교 운동회는 약 20여 곳으로 조전공부를 위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운동회가 경전의 번역서를 내는 일과 일반인의 불경 교육에서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이런 점에서 이미 상당부분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원전 번역 출간으로 일반인에게 불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들의 개인 홈페이지나 인터넷 불교동우회에서 그동안의 원전 풀이 강의를 제공하거나 토론의 장을 마련, 일반인들의 불경 공부와 불교수행 전반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부산대 불교독경회는 현재의 수행풍토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기초교리 수준의 교육만을 겨우 받거나 체계적인 교육의 기

전국 20여 모임 활동

불교학 발전 '주춧돌'

것보다는 경전이나 어록별로 운동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운동회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운동회는 부산대 불교독경회와 서울 교대 운동회 교수 등이 이끄는 운동회를 꼽을 수 있다.

이밖에도 불교경학연구회, 동양사회사상연구회, 경주 남산운동회, 원전운동회, 조문 운동회, 구경학회 등이 있다. 또한 성철선사상연구원에서는 운동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매년 6개의 정도의 운동회를 지원하고 있다.

회 없이 기복과 외행에 치우친 신행행태를 갖게 되는 적지 않은 불자들에게 심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김태원 교수는 "한국불교가 늙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것은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문제"라면서 "절에서 하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가 경전이나 어록을 통한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젊은 불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경전을 공부할 때는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마음

가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운동회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이 사찰 교리강좌나 불교교양대학에 출강, 일반인들의 경전공부를 적극 돕는 교육시스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불교 전반적인 분위기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위기로 바꾸는 데 있어서 하는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교육에서 한 단계 나아가 경전이나 어록을 통한 심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젊은 불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경전을 공부할 때는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겠다는 마음

목탁소리

폭력, 이제 그만

한명우 (취재1부 기자)

지난 7월23일 오전 편집국에 한 불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 불자는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서 20일 자정경 어느 스님이 한 노인을 동등이질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분개했다. 확인한 결과 사건은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60대의 이 노인은 그 사찰의 야간경비원으로, 신도들의 철야기도를 돕고 사찰 야간 순찰을 위해 스님들이 교대로 법당에 나가도록 돼 있었고, 그 교대시간을 경비원이 챙기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경비원이 제때 스님들에게 교대시간을 알리지 않았고, 신도들이 스님을 찾으며 사찰 측에 항의를 해오자 재부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은 경비원을 옆드리게 해놓고 근무가 태만하다며 경비봉으로 구타를 한 것이다. 그 스님은 기합을 준 것은 사실이나 경비봉으

로 몇 차례 짚혔을 뿐 구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내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됐다.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은 잘못 된 일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계종의 한 사찰에서 젊은 스님이 70이 다 된 노스님의 뺨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자초지종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그 사찰에서도 젊은 스님을 징계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불교계는 뿌리깊은 폭력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가장 비폭력적이고 자비로워야 할 승가에서 폭력성이 문제가 되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재가자들이 스님들도 중단의 고질적인 폭력 근절을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폭력은 중도와 또다른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폭력근절을 위한 의식개혁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시대의(火)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石楠葉(석남엽)

천지가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기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기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염> 모르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제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할 정신, 건강유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기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기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들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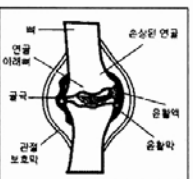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분
- 빈혈, 저혈압, 신경성질환, 간염, 간경화, 기관지 천식
- 뼈가 약하며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분
- 각종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분, 불임증, 신후병
- 성욕감퇴, 부정, 정지결핍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분)

"보시금은 백록청사 불사기금에 쓰여집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골다공증 관절염 류마티스

'물렀거라, 상어연골정제로 안전해방'



관절을 오르거나 약간의 활동만으로도 무릎이 수고 저리는 경우(관절염) 관절이 뻣뻣해지면서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퇴행성 관절염), 여기저기 곳곳이 붓고 아프고 힘들며 물이 고이는 경우(류마티스성 관절염), 엄지발가락이나

팔꿈치가 붓고 움직이기 힘든 경우(통풍성 관절염), 이 모든 증상으로부터 완전 해방될 수 있는 특수 영양식품이 수입되어 화제다. 뉴질랜드에서 수십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끝에 개발된 '상어연골정제' 상어에서 추출된 특수갑상과 마그네슘, 세레늄 등 시기는 방법으로 식전복용이 더욱 효과적이며 단기간 감소요법 보다는 꾸준히 복용이 무리가지 않는 효과를 가지며 3-4개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남성과 여성, 출가를 원하는 여성 출산후 오는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관절염 자연추출이성용 이온화 '코랄사크골드' 복용 1개월만에 확연한 화제발

에 나쁜 물이나 균을 잡아 정상인으로 회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해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관절염, 류마티스, 통풍, 퇴행성 환자들에게 희소식으로 여겨지는 '상어연골정제'는 국내 삼일양행 (02-790-8200)에서 독점 시판하고 있으며 부작용없이 1개월 복용부터 확실한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연일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코랄사크골드)

한달분 22만원, 두달분 40만원

삼일양행 1개월분 88,000원 문의: 삼일양행 서울(02)790-8200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신식 감정동 '金檀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뼉만큼 벌어집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 등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변보다 더 쓰드라니까"

인간의 건강이 금세처럼 차곡차곡 쌓여 꽃처럼 만개하려는 범주스님의 소망이 담겨 지어진 감정동의 이름이다. 신식 감정동은 만드는 방법은 스님의 비방으로 만든 약물에 감정공을 깨끗이 씻어 말린뒤 약집에 20여일간 담고 두었다가 깨내어 10여일을 말린다. 이 과정을 거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달. 이렇게 3번 반복해 감정동 금단화가 완성되까지 무려 30일이나 소요된다. 콩은 '속피영이콩'이라 부르기도 하는 서리태콩을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고달픈 작업이지만 그 과정자체가 죽어가는 생명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한다는 신념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고 범주 스님은 말했다.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중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꾸준한 금단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을 강화시켜 준다."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상담문의 ☎ (02) 3437-8282